

바닥에 흥건한 피

비행기가 추락해 부상자들이 긴급히 헬리콥터로 병원에 도착했다. 부상자는 붙은 상하의가 붙은 옷에 구멍조끼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팔다리에 경련이 일었고 나는 간질 발작이라고 생각했다. 상하의가 붙은 옷을 보고 공군 조종사옷이겠구나 생각하는 찰라에 바닥의 흥건한 피를 보았다. 빠르게 응급처치해야한다고 생각했고, 환자에게 다친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다. 환자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러시아어 같았다. 그는 격추당해 스웨덴 영토에 떨어진 러시아 공군 조종사가 분명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이고 이는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그때의 엉터리 판단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 모든 게 내 판단과는 정반대였다. 비행기 조종사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스웨덴 사람이었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였으며, 간질 발작이 아니라 추위에 몸을 떨었고, 그래서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던 것이었다. 피는 구멍조끼안에 들어 있던 컬러 앰플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판단이 그럴듯했다.

나는 어렸을적부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경험이 없던 나는 응급 상황을 처음 마주하고는 머릿속에서 재빨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어냈다. 보고 싶은 것은 못보고, 볼까 봐 겁나던 것만 본꼴이다. 늘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두려움에 떨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머릿속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다.

주목필터

우리는 뇌에는 간극 본능, 부정본능, 직선 본능등 10가지 본능의 필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정보는 이필터를 통과 못하지만, 극적인(이야기가 있는) 여러 본능에 호소하는 정보는 구멍을 통과한다. 결국 극적 본능에 딱 맞는 정보만 주목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해버린다. 그리고 언론이 그 본능을 이용해 주의를 사로잡는 탓에 우리는 세상을 과도하게 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극적 본능 중에서도 뉴스 생산자가 정보를 선별해 우리 소비자에게 제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포 본능이 아닐까 싶다.

공포 필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의 높은 순위 4가지가 있다. 뱀, 거미, 높은곳,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화와 관련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조상은 신체 손상, 감금, 독에 대한 두려움 덕분에 생존률이 높아졌다. 이런 위험 감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공포 본능을 일깨우고, 뉴스에서도 그런 본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날마다 볼 수 있다. 해마다 6만명이 뱀에 물려죽는 1,2 단계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여전히 유용하다. 3, 4단계의 삶에서는 유용함보다는 해가 많을 것이다. 특히 공포 본능이 세계관을 왜곡하는 탓에 해롭다. 실제 세계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덜 폭력적이고 더 안전하다.

자연재해 -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수는 절반이하로 줄었다. 오늘날 자연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자연이 변해서가 아니다. 다수가 더이상 1단계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는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닥치지만, 피해 정도는 매우 다르다. 부유할수록 철

저히 대비한다.

보이지 않는 4000만 대의 비행기 - 2016년에 초아 4000만대의 상업 항공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했다. 치명적 사고를 당한 항공기는 10대에 불과하다. 언론이 언급하는 항공기는 당연히 이 10대다. 전체 항공기 가운데 0.000025%다. 무사히 착륙한 항공기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 1930년대에는 비행기를 탄다는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사고가 많아 승객이 겁을 먹곤 했다. 1944년 시카고 합의 이후로 항공 사고 보고 양식을 통일해 서로 공유하고 위험 요소를 조직적으로 찾아내고, 안전조치를 개선해나갔다. 공포 본능은 워낙 강해서 전 세계가 협력해 위대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쟁과 갈등 - 제2차 세계대전에서 6500만 명이 사망했다. 인류역사상 강대국 간에 이렇게 긴 평화가 이어진 적은 없었다. 오늘날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적다. 끔찍한 이미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뉴스만 봐서는 믿기 힘든 사실이다.

오염 -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후쿠시마에서 탈출했지만 이후 16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방사능을 피해 도망쳤지만, 방사능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된 사람은 아직 한명도 없다. DDT가 먹이 사슬에 축적되어 어류와 조류에도 침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DDT사용은 규제되었다. 그러나 대중이 화학물질 오염에 대해 느끼는 공포가 거의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DDT는 해롭지만, DDT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찾을 수 없었다. 2002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497쪽 분량의 <DDT, DDE, DDD의 독성 분석>을 펴냈다. 2006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드디어 모든 과학적 검토를 마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마찬가지로 DDT를 인간에게 '미약하게 해로운' 물질로 분류하며, 많은 상황에서 건강에 해로운 점보다 이로운 점이 많다고 보고했다.

테러 - 공포 본능이 힘을 정확히 아는 집단이 있다면 언론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다. 그 증거는 명칭에 있다. 테러terror, 즉 공포가 그들이 노리는 것이다. 이들은 신체 손상, 감금, 그리고 독살이나 오염같은 모든 원시적 공포를 이용해 목표를 달성한다.

테러는 앞서 2장에서 이야기한 세계적 추세 중 예외에 속할만큼 점점 악화되고 있다.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4단계에서는 줄고 있다. 사실 4단계 나라에서 테러보다 적은 사망자를 낸 사망원인은 찾기 어렵다. 갠럽이 2001년 9월 11일 이후 일주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 51%가 자기 가족도 테러에 희생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14년이 지나도 그 수치는 변함없이 51%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직후와 거의 같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공포 대 위험: 실제로 위험한 것을 두려워 하기

공포는 유용할 수 있다. 단 실제로 위험한 것에 공포를 느낄 때라야 그렇다. 공포 본능은 세계를 이해하는 형편없는 지침이다. 공포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것에 주목하게 하고, 실제로 매우 위험한 것은 외면하도록 한다.

자연재해(총사망자의 0.1%) 항공기 사고(0.001%), 살인(0.7%), 방사성물질 유출(0%), 테러

(0.05%) 같은 끔찍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중 연간 총사망자의 1%를 넘는 경우는 없지만, 여전히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다.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 지금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인용문 :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

“그렇지 않아. 내 시간과 자원을 이곳에 찾아온 사람을 살리는 데 소진하는 건 비윤리적이야. 내가 병원 밖 서비스를 개선하면 더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지방의 ‘모든’ 아이의 죽음은 내 책임이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똑같아.”

“네 의무는 내가 돌보는 환자한테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야.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냉정한 이론상의 추측일 뿐이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곳에 쓸 자원을 훔치는 꼴이니까요.”

수치보다 눈에 보이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지나치게 주목하면 우리 자원을 문제의 일부에만 쏟아부을 수 있고 따라서 훨씬 적은 목숨을 구할 뿐이다. 이런 원칙은 부족한 자원을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크기 본능

사람들은 비율을 왜곡해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비율을 왜곡하는 것은 다시 말해 크기를 오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숫자 하나만 보고 그 중요성을 오판하는 것과 하나의 사례, 즉 눈에 보이는 피해자 한명의 중요성을 오판하는 것은 본능에서 나온다. 크기 본능은 우리의 제한된 관심과 자원을 개별 사례나 눈에보이는 피해자, 또는 우리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것에 쏟게 만든다.

1.2 단계에 나라에서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의사나 병실침대가 아니다. 병실 침대와 의사 수를 세기 쉽고 정치인은 병원 개원식을 무척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생존률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병원 밖에서 해당 지역 간호사, 산파, 교육받은 부모 등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크기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수를 비교하라. — 2016년에 420만명의 아기가 죽었다. 이 수 하나만 보면 엄청난 보이지만 이전의 다른 수와 비교하면 다르게 보인다. 그 전해에는 440만 명이었고, 그전해에는 450만 명, 1950년에는 1440만명이었다. 1950년에 비해 1000만이상이 줄어든것이다.

큰전쟁 - 베트남에는 베트남 전쟁비가 1M정도 높이의 돌로 되어있다. 이 전쟁에서 150만명이 넘는 베트남인과 5만 8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큰 사건에 비해서 돌의 크기가 너무 작은거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지만 베트남의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하면 다르게 보인다. 프랑스 식민 통치 독립 기념비는 3.5m이고, 베트남이 중국과의 전쟁을 기리는 비는 100m 가까이 되는 돌탑이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한 기간은 200년이였다. 베트남과 중국의 전쟁은 싸움과 휴전을 반복하여 2000년동안 지속되였다. 베트남전은 20년이였다. 비의 크기는 그런 기간을 완벽히 반영했다.

곰과 도끼 - 2004년 세아이의 어머니인 38세 여성 마리 라르손은 그녀의 옛남자에 의해 도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살해당했다. 스웨덴 언론의 보도는 지방신문에 짧게 언급된 정도로 적었다. 반면 세아이의 아버지인 40세의 요한 베스텔룬드도 같은날 사냥을 나갔다가 곰을 만나 목숨을 잃었다. 그는 1902년 이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이 사건은 스웨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됐다. 스웨덴에서 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일은 한세기에 한번일어나는 사건이다.반명 여성이 옛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30일에 한번 꼴로 일어난다. 규모로 치면 1300배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핵과 신종 플루 - 뉴스가 비율을 왜곡하는 경우는 곰과 도끼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처음 몇 달 동안 신종플루로 수천명이 사망했다. 2주일에 걸쳐 그 소식이 뉴스를 도배했다. 그러나 2014년의 에볼라와 달리 신종플루 사망자는 2배로 증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직선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보도가 되는 2주일 동안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31명, 구글에서 검색한 관련 기사는 25만 3,442건이였다. 사망자 1명당 8,176건인 셈이다. 같은 2주일 동안 결핵 사망자는 대략 6만 3066명이였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1, 2단계에 사는 사람들이였다. 결핵은 지금은 얼마든지 치료가능한 병이지만 전염성이 있고 약제에 내성이 생길수 있어서 4단계 사람들에게도 위험 할 수 있다. 그런 결핵을 다룬 뉴스는 사망자 1인당 0.1건이였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결핵으로 똑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보다 8만 2000배나 많은 주목을받은 셈이다.

80/20 법칙 - 문제의 80%를 차지하는 문제에 먼저 주목하는것은 좋은 방법이다.예를 들어 세계 에너지를 가나다순으로 나열하면, 가스, 바이오 연료, 석유, 석탄, 수력, 원자력, 지열, 태양광, 풍력이다. 이렇게 나열하면 모두 똑같이 중요해보인다. 하지만 석유, 석탄, 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3개를 합치면 전체의 87%이다.

세계 핀코드 -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려면 다음을 알면 좋다. 세계 인구 중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고, 앞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곳은 어디인가? 세계시장은 어디인가? 인터넷 사용자는 주로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관광객은 어디서 올 것인가? 대부분의 화물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인류의 다수가 아시아에 산다.

유엔은 2100년이면 아프리카는 30억이 늘고 아시아는 10억이 늘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의 80%이상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유엔의 세계 인구 성장 예상치가 옳다면,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득이 지금처럼 꾸준히 높아진다면, 앞으로 20년에는 세계시장의 무게중심이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옮겨간다. 오늘 날 북대서양 주변의 부유한 국

가에 사는, 세계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4단계 소비자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 처럼 전 세계에서 소득이 꾸준히 높아진다면 그비율은 2027년 50%로 줄어든 것이다. 2040년에는 4단계 소비자의 60%가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살것이다.

수를 나눠보라

큰 수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흔히 그 수를 총합으로 나누는 것이다. 총량은 구하기 쉬워서 쉽게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세면 그만이다. 하지만 비율이 더 의미 있을때가 많다.

분모에 나타나는 추세 - 420만명의 죽은 아기 사례에서 1950년 사망한 아기 1440만명과 비교했다. 만약 해마다 신생아 수가 줄고, 그게 아기의 사망이 줄어드는 이유라면 어떨까? 어떤 수가 줄어드는 것은 종종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수가 줄기 때문일 수 있다. 1950년 신생아는 9700만명이고, 사망한 아이는 1440만 명이다. 아동사망률은 15%이다. 2016년 신생아는 1억 4100만명이고, 죽은 아이는 420만명이다. 신생아 사망률은 3%이다. 사망자 수가 아닌 비율을 비교하니, 최근 수치가 갑자기 놀랍도록 낮아보인다.

국가 별 '총' 배출량을 기초로 중국과 인도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전체 인구가 500만 명인 노르웨이는 1인당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저 밖'은 무수히 많은 장소의 합이다. 우리가 사는 '여기' 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끔찍한 일이 '저 밖'에서는 매일 수백건씩 일어난다. 하지만 그 장소 하나하나 따로 추적해보면 대부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수백건의 분모가 엄청나게 큰 수라는것을 잊지 말자.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크든 작든) 그 수가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달랑 하나뿐 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 수를 관련있는 다른 수와 비교하거나 다른수로 나눴을때 정반대 인상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크기 본능을 억제 하려면 비율을 고려하라

소감

5장에는 죽음과 목숨을 살리는것에 대한이야기가 가득했다. 그것도 아이들에 목숨에 대한...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아득해지는 일들을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짐작도하기 힘들다. 글을 읽으면서 필자가 느꼈을 고뇌가 절절히 느껴졌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준 해준 필자가 대단하고 감사하다.

콩고강 남쪽 반둔두 지역 대초원에서 극도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녁 식사 대접자리가 있었다. 저녁 식사에서 구운 쥐고기와 튀긴 애벌레를 먹어야만 한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수 있을까?

“우리는 애벌레를 먹지 않는 종족입니다.” 종족이 다르면 풍습도 다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

다.

일반화 본능

일반화 본능은 하나의 사례로 그것이 속한 범주를 판단하거나, 같은 범주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범주에속한 각각의 대상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이는 다른 본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할 수 있다. 간극 본능은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고, 일반화 본능은 우리가 저들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A:20% B: 50% C:80%

세계 10대 은행중 한 곳의 연례 회동에 모인 71명의 은행 간부중 무려 85%가 전세계에서 소수의 아이들(A:20%)만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매우 틀린 답을 내놓았다. 백신은 공장에서 아이 팔뚝에 달기까지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냉장 시설을 갖춘 컨테이너에 넣어 전 세계항구로 운반하고, 거기서 다시 냉장 시설을 갖춘 트럭에 싣는다. 각 지역의 병원과 진료소는 트럭에 실려서 온 백신을 다시 냉장 시설에 보관한다. 이러한 운송 경로를 저온 유통이라고 한다. 저온 유통이 가능하려면 우선 운송, 전기, 교육, 보건 의료 같은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장을 새로 지을 때도 이와 똑같은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앞서의 정보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거대한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다.

임신하면 대략 2년 정도는 생리를 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있고 집 밖에서 일하는, 교육받은 여성이 늘고 있다. 이 사실은 2, 3단계단계에서 여성 수십억 인구 사이에서 생리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양 생리대 제조업체는 소비자를 4단계에서 생리를 하는 여성 3억만 고려하고 있었다.

3단계에 사는 사람은 현재 20억에서 2040년에는 40억까지 늘 것이다.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소비자고 되고 있다. 세계 인구 대다수가 물건을 전혀 살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가난하다고 오해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놓칠것이다.

만만찮은 현실

우리에게는 늘 범주가 필요하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순한 범주중 어떤것(예:‘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그 범주를 좀 더 나은 것(예:네 단계)으로 대체해야한다. 그곳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 자신의 잘못된 범주화를 알 수 있다. 인도 케랄라주 타루바난타푸람이나 우간다 캄팔라를 가보면 예상과 다르게 매우 잘 정돈되어 있는 도시를 볼 수 있다. 신호등도 있고, 하수처리 시설도 있다. 그뿐만아니라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없다. 시설이 낙후되었지만 공공 병원도 있다. 그러나 극빈층 지역은 아예 병원도 없다.인도 케랄라주에서 엘리베이터는 문에 발이 끼였을때 이것을 감지하고 다시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카페가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살던 곳에서 평범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일반화가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화 본능은 어떻게 억제할까

더 나은 범주를 찾아라: 달러 스트리트

직접 가볼수 없다면 달러 스트리트 사이트를 참고하라. 달러 스트리트 사이트에서 1,2,3 단계 나라의 생활 사진을 볼수 있다. 50개국이 넘는 나라의 약 300개 가정에 사람을 보내 찍은 사진이다. 사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이를 닦고, 식사 준비를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집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어떤 식으로 난방을 하고 불을 밝히는지, 화장실이나 조리 기구 같은 시설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밖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총 130여 개 항목이 사진에 담겼다. 국가는 달라도 소득수준이 같으면 삶이 놀랍도록 닮았고, 국가는 같아도 소득수준이 다르면 삶의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내범주에 의문을 품어라 : 5가지 방법

내부의 차이점과 집단 간 유사점 찾아보기

나이지리아와 중국에서 2단계 가정은 (떨깁위에 삼각대를 놓고 물을 끓이는) 비슷한 조리기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문화는 아니다. 전세계어디서든 2단계 나라에서는 흔히 물을 그렇게 끓인다.

아프리카는 54개국 10억인구가 사는 대륙이고 네 단계 삶이 모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아프리카의 문제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자동차로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 질러 100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케냐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 두지역은 런던과 테헤란보다도 멀리 떨어져있다.

다수에 주의하기

‘다수’는 단지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51%가 될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다. ‘다수’라는 말을 들었다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라. 흔히 세계 모든 국가에서 여성 다수는 원할 때 피임을 한다고 말한다. 이때 다수는 정확히 얼마일까? 중국과 프랑스는 96%가 원할 때 피임을 한다. 그러나 아이티와 라이베리아에서 다수는 69%이며, 앙골라에서는 63%이다.

예외 사례에 주의하기

화학물질 공포증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예외적인 해로운 물질 몇 가지를 일반화한 데서 생긴다. 누군가가 예를 달랑 하나만 내놓고 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예를 더 제시하라고 말해야한다.

나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4단계 삶의 경험을 모든 단계에 일반화 할 때는 조심하라. 또 다른 사람이 모두 멍청하다고 생각 될 때는 특히 조심해야한다. 2,3단계 나라에서는 짓다만 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게을러서가 그런것이 아니다. 은행을 가기 어려운환경에서 자신의 재산을 안정적 자산인 벽돌로 바꾸어 집의 형태로 보관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하나의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할 때 주의하라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의사와 간호사는 의식을 잃고 들것에 실려온 군인 중 위를 보고 똑바로 누운 사람보다 바닥에 엎드린 사람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토하다 질식

하는것을 방지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많은 사람을 살렸고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전통적 방식을 대체한 새로운 공중 보건지식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까지 엎드려 재우기 시작했다. 힘없는 사람은 모두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엎드려도 영아 돌연 사망이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나왔고 그 현상을 아무도 해명하지 못했다. 1985년에 비로소 홍콩의 의사들이 엎드린 자세가 영아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유럽의 의사들은 그 말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7년이 흐른 뒤, 스웨덴 당국은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꿨다. 광범위한 일반화 때문에 수천 명의 아기가 죽었다. 광범위한 일반화는 좋은 의도라는 명분 뒤에 쉽게 숨을 수 있다.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여러 집단을 일반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하며, 우리 논리에 숨은 광범위한 일반화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한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예전의 단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재평가해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기꺼이 시인해야한다. “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 지금 저 설명은 범주를 이용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 범주가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일반화 본능을 억제하려면 내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라.

부유층을 대상으로한 에든버러 강연 후, 잘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찾아와 아프리카의 발전에 대한 강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치도 잘 봤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발전할 가능성은 글썽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 근무해봐서 알아요. 아시겠지만 문제는 나이지리아 문화예요. 문화 때문에 현대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 입니다 절대로요!”

운명 본능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환경은 크게 변하지않았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터득한 뒤, 그것을 재평가 하기보다 끊임없이 지속되리라 생각하는 게 분명 훌륭한 생존전략이었을 것이다.

어떤 대상을 불변의 것으로 보는 이런 본능,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런 본능은 오늘날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혁신적 변화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바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프리카는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뒤쳐진다. 오늘날 아프리카 신생아의 평균 수명은 65세다. 서유럽 신생아보다 17세 낮다. 1970년의 스웨덴 수준이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5개국,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의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인 72세보다 높다. 이 5개국은 모두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아랍국가여서 예외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사하라 이남만 보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는 거의 모두 지난 60년 사이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그 기간동안 사하라사막 이남의 50개국에서 모두 아동사망률이 과거 스웨

덴보다 빠른속도로 줄었다. 그들은 과거 유럽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90년 전에는 스웨덴에도 극빈층이 있었다. 그리고 50년 전에는 중국, 인도, 한국 모두 지금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뒤쳐져 있었다. 당시 아시아의 운명은 현재 아프리카의 운명과 거의 같아서 “40억 인구를 절대 먹여 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극빈층에 갇힌 사람은 약 5억이다. 이들이 계속 그렇게 살 운명이라면, 이 특별한 집단에는 이미 극빈층을 탈출한 다른 아프리카 사람을 비롯해 전 세계 수십 억 인구와 비교해 뭔가 유일무이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반면 아프리카가 서양을 따라잡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운명본능은 서양의 지속적 발전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IMF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수년 동안 꾸준히 4단계 국가의 연간 경제성장을 3%로 예측했다. 하지만 4단계 국가는 5년동안 한번도 이 예측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IMF는 5년 동안 해마다 “내년에는 정상 궤도로 돌아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마침내 돌아갈 ‘정상 궤도’가 없다는 걸 깨닫고 성장 예측치를 2%로 낮췄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케냐와 아시아의 방글라데시는 5%이상의 경제성장을 했다.

아기와 종교

이란의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1984년 6명 남짓에서 15년 뒤에는 3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줄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란을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 이란의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감소한 현상은 서양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이란은 1990년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콘돔 공장이 들어섰고, 신부와 신랑 모두에게 혼전 성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다.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와 관계가 깊은 것은 종교가 아니라 소득이다. 1960년에는 여성 1인당 아이를 평균 3.5명 미만 출산하는 나라가 40개국이었고, 일본을 빼면 모두 기독교인이 다수인 국가였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 여성은 아이를 평균 3.1명 낳고, 기독교 사회는 2.7명 낳는다. 세계의 주요 종교별 출생률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일상적 화제가 된 성 이야기

스웨덴이 1단계를 벗어 났을 시대에는 자식이 많은 대가족 사회였다. 남성은 기저귀를 갈거나 요리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피임이나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세대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스웨덴 문화는 변했다.

오늘날 스웨덴 사람은 거의 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 1960년대에는 낙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여전히 불법이었다. 그 시절에는 스웨덴 여성은 기독교 국가인 폴란드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5년후 폴란드는 낙태를 금지했고, 스웨덴은 낙태를 합법화 했다. 그러자 젊은 여성들이 정반대로 이동했다.

아시아에서도 스웨덴의 예전 가치관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아시아의 가치’치라고 한다. 오늘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마초적 가치는 아시아의 가치도, 아프리카의 가치도 아니며 이슬람의 가치도 아니고, 동양의 가치도 아니다. 스웨덴에서 60년 전이나 볼 수 있었던 가부장적 가치이며, 스웨덴에서 그랬듯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라질 가치다.

운명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더딘 변화는 불변이 아니다

연간 1% 성장은 더더 보이지만 70년간 축적되면 2배성장이 되고, 연간 2% 성장은 35년뒤 2배 성장이 되며, 연간 3% 성장은 24년뒤 2배 성장이 된다. 1900년에는 지표면의 0.03%가 보호구역이 되었고, 1930년에는 그 수가 0.2%로 늘었다. 연간 증가율은 작아서 감지 못할 정도지만 천천히 보호구역이 늘고 있다. 오늘날에는 지표면의 무려 15%가 보호구역이다. 운명 본능을 억제하려면 더딘 변화를 불변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지식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라.

수학, 물리학 같은 과학이나 예술에서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도 신선도가 잘 유지되는 편이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지식은 아주 빠르게 상한다. 운명 본능을 억제하려면 늘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지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한다.

할아버지와 이야기 해보거나 30년전에 내나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찾아보면 급격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성인식이나 보수적이었던 가치관이 현대에 와서 달라진것처럼 문화가 변한 사례를 수집하라.

내게는 어떤 비전도 없다.

2013년 5월 12일, 나는 “2063년의 아프리카 르네상스와 어젠다”라는 제목의 아프리카연합 학술회의 때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모인 여성 지도자 500명 앞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후 강연을 들었던 아프리카 연합의 사무국장 은코사자나 들라미나주마 에게 강연이 어땠는지 물었다.

“글쎄요, 도표도 훌륭하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아무런 비전이 없네요”

“네? 비전이 부족해요? 아프리카 극빈층이 앞으로 20년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맞아요, 극빈층이 사라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거기서 끝났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극빈층이 사라지는 거로 만족하면서 적당히 가난하게 사는 정도로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 손주들이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고속열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비전인가요? 유럽의 넓은 비전과 뭐가 다르죠? ‘우리’ 손주들도 ‘교수님 나라의’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하며, 스웨덴 북쪽에 있느냐는 이국적인 얼음호텔에 갈 겁니다. 물론 오래걸리겠죠. 하지만 내 50년 비전으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에서, 원치 않는 난민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환영받을 겁니다. “

나는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언젠가는 따라잡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 (국민, 국가, 종교, 문화를 포함해) 많은 것이 변화가 느린 탓에 늘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비록 사소하고 느린 변화라도 조금씩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언론은 세계의 일부만 보여준다.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언론 말고 정보를 얻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가 어떤가? 전문가는 자신이 선택한 세계의 한 조각을 이해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이들도 매우 조심해야한다.

단일 관점 본능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세계를 단순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단순한 원인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하며, 모든 문제는 단 하나의 단순한 해결책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

전문직 : 전문가와 활동가

전문가의 한계

그들이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가이다. 64회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참석해서 재능있는 젊은 과학자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있었다. 청중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알아주는 엘리트 지식인이었지만, 아동 예방접종 문제에서는 일반인 보다 정답률이 낮았다. 수치에 밝다든가, 교육 수준이 높다든가, 심지어 노벨상을 받았든가 해서 똑똑한 것과 세계적 사실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은것과는 무관하다.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가일 뿐이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다. 최근에 한 여성 권리를 주제로한 경연에서 292명의 페미니스트들은 30세 여성이 학교를 다닌 기간이 30세 남성보다 평균 1년 적을 뿐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다.

망치와 못

“아이한테 망치를 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훌륭한 지식은 오히려 해결책을 찾는 전문가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수치는 단일한 해결책이 못된다.

연구를하다 보면 가설을 실험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가설 그 자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중에 나올 때가 많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수치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수치만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의심해봐야한다.

1994년부터 2004년 까지 모잠비크 총리를 지낸 파스코알 모쿰비는 2002년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때, 내게 모잠비크가 위대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잠비크의 경제의 여러 통계적 수치는 좋지 않았다. 그가 모잠비크의 경제발전을 확인한 방법은 해마다 5월 1일에 하는 전통행사 행진에서 시민들이 뭘 신었는지 보는 것이다. 그때에는 모두가 잘 차려 입으려한다. 친구한테도 신발을 빌릴수도 없다. 지난해에 비해 시민이 신은 신발이 좋아졌다면 그들의 삶이 개선된것이다. 그리고 이곳 저곳의 건설현장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건설 현장에서 풀이 자랄틈없이 새 벽돌을 계속 쌓고 있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살지 않고 투자할 돈이 있다는것이다.

치료는 단인할 해결책이 못 된다

의료인은 치료를, 심지어 특정 종류의 치료를 매우 단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1950년대에 덴마크 공중 보건의 할프단 말레르는 세계보건기구에 결핵을 뿌리 뽑을 방법을 제안했다. 작은 버스에 여러 대에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싣고 인도 마을 곳곳을 누비자는 제안이었다. 전략은 단순했지만 실패했다. 다급히 치료하거나 손쓸 곳이 한둘이 아닌 사람들 앞에 드디어 방문한 간호사와 의사가 다른 병은 치료하지 않고 엑스레이만 찍는 것이 반가울리가 없는 것이다.

매우 가난한 산모의 목숨을 구하는 가장 값진 방법은 지역 간호사에게 제왕절개 수술법을 가르치거나 심각한 출혈이나 감염에 더 좋은 치료법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지역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실에 더 많은 교과서와 더 많은 교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제대로 공급해 학생들이 해가 진 뒤에도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념

쿠바: 빈곤한 나라 중 가장 건강한 나라

나는 1993년 쿠바에 머물면서, 4만 명의 희생자를 낸 심각한 유행병을 연구한 적이 있다. 1991년 말, 쿠바 피나르델리오주에서 담배를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들 사이에서 색맹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팔다리에 감각이 사라졌다. 3개월간 문제를 조사한 나는 그 가난한 농부들이 (소문처럼) 암시장에서 독성 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어떤 세균 때문에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시경제학이 초래한 단순한 영양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식량을 배급한다. 이는 쿠바 정부의 음식 배급계획이 실패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1년후 쿠바에서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쿠바의 건강'이라는 강연을 했다. 그곳에서 쿠바의 특별한 위치를 보여주었다. 쿠바는 소득이 미국의 4분의1 수준인데도 아동 생존율은 미국만큼 높았다 이 도표를 보며 쿠바의 보건부 장관은 “쿠바는 빈곤한 나라 중 가장 건강한 나라”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쿠바는 건강한 나라 중 가장 빈곤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부유한 나라 중 가장 허약한 나라

미국과 쿠바는 다른 정치이념을 가진 나라이다. 나에게 미국과 쿠바 중 살 곳을 하나 선택하라면 미국에서 살겠지만, 미국은 3단계 공산국가인 쿠바가 아니라 다른 4단계 자본주의국가와 비교해야 한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9,400달러로, 다른 4단계 자본주의국가의 약 3,600달러보다 2배가 넘는데, 미국 시민은 이 많은 돈을 쓰고도 다른 나라보다 기대 수명이 3년 짧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미국보다 기대 수명이 긴 나라는 39개국이나 된다. 그 이유는 4단계 국가의 시민 대부분이 당연시하는 기초 공공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은 스스로를 극단적 사회주의 정권과 비교하지 말고, 비슷한 자원을 가진 다른 자본주의국가와 비교하면서 왜 같은 비용을 쓰고도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지 자문해야 한다.

쿠바의 공산 체제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단일 관점에 얽매일 때의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의료체계도 시장이 한 국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이한 관점의 사례이다. 민간 부문 대 공공 부문에 관한

토론이 대부분 그렇듯 답은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다.

민주주의도 단일한 해결책이 못 된다.

경제와 사회가 크게 발전한 나라라고 해서 다 민주국가는 아니다. 2012-2016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열 곳 중 아홉 곳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다. 경제성장과 보건 의료 발전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와 모순되는 현실에 부딪히기 쉽다.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민주주의가 우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민주주의 자체를 목적으로 지지하는편이 더 바람직하다.

다른 모든 발전을 가능하는 단 하나의 척도는 없다. 1인당 GDP도, (쿠바에서처럼) 아동 사망률도, (미국에서처럼) 개인의 자유도, 심지어 민주주의도 단일한 척도가 될 수 없다. 한 국가의 발전을 측정하는 단일한 척도는 없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 단일한 관점이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거대 제약사는 말라리아나 수면병 처럼 빈곤한 사람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질병을 연구하지 않는다. 누구의 책임일까?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이사회때문일까. 회사 지분을 보유한 탐욕적인 투자자때문일까?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노바르티스의 지분 많이 보유한 곳은 은퇴기금이다. 제약회사의 주가는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은퇴기금의 소유자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욕해야하는 걸까? 가난한 사람 질병에 쓰여야할 자금이 오히려 손주들 용돈으로 돌아갔으니 그 돈을 쓴 손주들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비난 본능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다. 비난 본능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성을 과장하여,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비난 게임

우리가 쉽게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사악한 경영인, 거짓말 하는 언론인, 외국인이 있다.

경영인

유니세프는 여러 제약 회사에 입찰 경쟁을 붙여 10년 동안 약을 공급받곤 했다. 계약 기간과 규모가 워낙 매력적이라 입찰들은 아주 좋은 가격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스위스의 작은 가족 기업이 믿기 힘든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이 제시한 알약 한개당 가격은 원가보다도 낮았다. 나는 그들에게 뭔가 구린것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조과정을 로봇으로 혁신하여 타기업보다 납품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었고 빠른 납품으로

대금 빠르게 받았고, 원자재 가격은 낮게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내 머릿속에 제약회사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다른 생각은 들어올 틈이 없었다.

언론인

BBC, PBS, 내셔널지오그래픽, 디즈니 등 주요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이 참석한 학술회의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실문제를 질문했었다. 정답률을 보면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지식수준은 일반인보다 나을게 없었다. 만약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전반적으로 이런 수준이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극적인 내용으로 본능에 호소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들도 사실은 다른사람들처럼 세계를 오해하고 있을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경쟁을 해야 하고, 그래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환경에 있다는것도 알아야한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한다면 그들에 변화를 요구하는것은 불공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현실 반영은 언론에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

난민

2015년 난민 4000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 지중해에서 익사했다. 누구를 탓해야할까? 그렇다. 절박한 가족을 속여 1인당 1000유로를 받고 사람들을 죽음의 고무 보트에 태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밀입국 알선자들이 죽일 놈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멈춘다. 그런데 난민은 편안한 비행기나 여객선을 타지 않고 왜 육지로 리비아나 터키로 가서 다시 저런 부실한 고무보트에 목숨을 맡기는 걸까? 검색해보면 터키에서 스웨덴, 리비아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권은 50유로 미만으로 나온게 많았다. 하지만 유럽연합 정책의 규정상 비자가 없으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난민이 타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결국 바다를 건널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위험한 배를 타야할까? 이 역시 유럽 연합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에 도착하는 난민의 배는 무조건 압수하게 되어 있다. 결국 밀입국 알선자들은 안전한 배에 난민을 태우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된다.

유럽의 여러 정부는 전쟁에 짓밟힌 나라의 난민에게 망명 자격을 신청 및 획득할 자격을 주도록 한 제네바 협약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민 정책은 그런 주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밀입국 알선자가 활동하는 운송 시장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비난할 사람을 찾는 본능이 있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똑똑하고 자상한 사람도 난민 익사 사고는 우리의 이민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끔찍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외국인

5장에서 인도와 중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례는 비난 대상을 찾음으로서 전체 시스템을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현재 4단계 삶을 사는 나라들이 지난 50년간 배출한 것이다. 캐나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보다 여전히 2배 많고, 인도보다는 8배 많다. 전 세계 연간 화석연료 사용량 중 가장 부유한 10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유한 10억 인구가 그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10억인구는 겨우 1%를 차지할 뿐이다.

비난과 칭찬

우리는 비난 본능 때문에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합당한 수준 이상의 힘과 영향력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의 낮은 출산율을 보면 그것 마오쩌둥의 한 자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있다. 마오쩌둥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 였다. 그러나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6명에서 3명으로 급감한 것은 한자녀 정책이 나오기 10년 전의 일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태국, 한국 같은 여러나라에서는 그런 강제 정책이 없었는데도 1.5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여기에는 막강한 한 사람의 결정적 명령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다.

더 유력한 용의자

어떤일이 잘 풀릴 때도 사람보다는 두종류의 시스템에 더 많은 공을 돌려야한다.

사회기관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이 제자리걸음인 국가는 지도자가 대단히 파괴적이고 무력 충돌이 잦은 몇몇 나라뿐이다. 그 밖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사회와 경제가 발전한다. 사회를 꾸려가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인 다수의 사람들이다.

2014년 에볼라 퇴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웅적 지도자도, 국경 없는 의사회나 유니세프 같은 영웅적 조직도 아니었다. 공무원과 지역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나서서 묵묵히 공중 보건 캠페인을 벌여 오랫동안 내려오던 장례 관습을 단 며칠 만에 바꿔놓고 죽어가는 환자를 목숨 걸고 치료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모두 찾아 처리하는 성가시고 위험하고 복잡한 일을 해 냈기 때문이다.

기술

산업혁명이 수십억 인구를 살린 이유는 더 나은 지도자를 배출해서가 아니라, 세탁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세제 같은 것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세탁기는 어머니들의 빨래시간을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시간으로 바꿨다. 전등, 제대로 된 하수 시설,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 시력 나쁜 사람을 위한 안경,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그리고 운송수단등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개인이나 집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 비난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쁜 사람을 찾아내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항상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여러 원인이 얽힌 시스템이 문제일 때가 대부분이다.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 지금 희생양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개인을 비난하다 보면 다른 이유에 주목하지 못해 앞으로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힘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1981년 나칼라 근방 가난한 해안 지역 멤바에서 설명 할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다. 환자들은 다리가 마비되고 심한경우에 눈까지 멀었다.그 곳에 의사는 나 하나였다.. 나칼라시의 시장은 그 병이 시내로 전염되는 것을 걱정했다. 나도 전염성이 없다고 확신할수 없었다. 결

국 멤버로 가는 길은 차단되었다.

다음날 아침 음식을 사기 위해 시내로 나선 멤버의 여성 20명은 버스운행이 중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시내로 들어가기위해 해안으로 내려가 어부들의 배를 탔고 많은 사람을 태운 작고 낡은 배는 뒤집혔다. 배에탄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어부들은 모두 익사하고 말았다.

두렵고, 시간에 쫓기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각날 때면 인간은 정말로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빨리 결정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다급함에 쫓기다 보면 분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다급함 본능

드디어 마지막 본능까지 왔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영업 사원이나 활동가가 딱 이런 투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침착하라. 그건 대개 사실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절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다.

아주 먼 과거에는 이 본능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했을 것이다. 풀숲에 사자가 있을 거라 생각되면 지나치게 분석하는 건 옳지 않다.우리는 불충분한 정보로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즉각적 위험은 거의 사라졌고 좀 더 복잡하고 대개는 좀 더 추상적 문제를 마주할때가 많다.

다급함 본능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하루 특가!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평균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A : 더 더워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B: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한다.

C: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예외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 다른 문제와 다르게 정답률이 매우 높다. 이에는 엘고어의 공이 적지 않다. “두려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엘고어는 기후변화에 위험성을 강조해서 이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동참하길 요청했다. 하지만 난 두려움과 다급함으로 러시아 공군 조종사와 바닥에 흥건한 피를 본적이 있고, 엄마와 아이들과 어부를 익사하게 만든 경험이 있다. 두려움에 다급함이 더해지면 어리석고 극적인 결정을 내려,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기후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려움과 다급함으로 위기를 조장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냉철한 분석에서 나온 행동을 보여주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아야한다. 온실가스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4단계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추적할 데이터는 매우 적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는 겨우 2년에 한 번 발표한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유용한 활동 중 하나는 데이터를 개선하는 것일 수 있다. 나는 스웨덴 정부에 로비를 벌였고 스웨덴은 2014년부터 (세계 최초이자 아직도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분기별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편리한 두려움

기후변화 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두려움과 조급함을 자극하는 방법은 편리하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준다. 이 피로감은 대중이 문제를 외면하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활동가들은 알아야한다.

에볼라

3장에서 이야기한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수치가 두배로 증가하여 매우 다급한)를 막기위해 전 세계 수백명의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에볼라로 죽었고 그렇지 않은지에 데이터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서, 그들의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에볼라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의심사례 수치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방치되어 있는 확정사례 데이터를 통합하고 확정사례수는 2주전 정점을 찍었다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들의 활동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다섯 가지

“세계적 유행병,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이 문제들이 가장 걱정되는 이유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의 세가지는 예전에 일어났고, 나머지 두가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 유행병 -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전 세계에 퍼진 스페인 독감은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염병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독한 독감이 여전히 전 세계인의 건강에 가장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 이유는 독감의 전염 경로 탓이다. 독감은 공기중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감염자 한 사람이 다른사람을 접촉하지 않고도 전염시킬수 있다. 독감은 매우 빠른 전파력을 갖는다. 세계는 독감에 대처할 준비가 과거보다 잘 되어 있지만, 여전히 1단계 사람들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극도의 빈곤 - 다른 위험은 가능성의 이야기지만 빈곤은 현실이며 날마다일어나고 있는 고통이다. 오늘날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극빈 층은 어느때보다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8억 인구가 극빈층이다. 지금 당장 8억인구가 빈곤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해결책도 알고 있다. 평화, 학교 교육, 보편적 기초 의료 서비스, 전기, 깨끗한 물, 화장실, 피임, 시장의 힘을 가동할 소액 대출 등이 필요하다. 가난을 끝내는 데 혁신 따위는 필요 없다. 다른 모든 곳에서 효과를 본 방법을 쓰면 그만이다. 그리고 빨리 행동할수록 해결할 문제는 더 작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사실충실성

사실충실성은 지금 그 결정이 다급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다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